朝鮮日報 夕刊

社長 鄭隱方
編輯人兼發行人 李一
代表取締役 方漢奎
印刷人 金東洪
主筆 鄭仁宇
編輯局長 鄭千植

所在地 서울特別市太平路一街六一
社 報 朝 鮮 日
株式會社
電話 交換②3101—3103 直通②2183—2185 社長室0507 編輯局8718 業務局0773
購讀料 一個月一百四十圓 一部六拾錢

샘표간장
泉
適 天然釀造

韓日會談三日午再開

友好와協調希求

世界耳目은 우리들에게 集中

【東京十二日發UPI至急電=東京】韓日會談 第一次會合은 十二日午前十時五分(韓國時間)에 開始되었다 八日本代表는 會談後 모두아무런言及도하지않았으나 다음과같은 同聲明을 發表하였다 『第四次韓日全面會談의 再開會議는 一九五九年八月十一日 上午十時 日本外務省에서 開催되었다 韓國代表團은 許政首席代表가 人事를했으며 日本代表團은 澤田廉三氏 許首席演說全文 史에 있어서 重要한 時期가 된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關係는매우 重大한時期에놓여있다고 금이 時間은 아마도 世界 저금수개무나라의 關係는매우 重大한時期에놓여있다고 生이 있었으며 이렇게世界 集中된일도 없었다 우리들에게 界興論이 우리들에 고있는일은 죽은 과그자라 는일에 대하여 어떻게심 이한國心을가져볼일도없게 기었었다 韓國은 最近 再開 나라關係에있어서 韓國은 隱忍自重 隱忍하여 그러나 아직도 者들이 있지는않다 多數의 政府는 이會議을 無條件 再開하 는데 合意할수 있었으며 韓國政府는 兩國間의 見解差異를 議題있는 討議 를거쳐 解決할수 있다고 確信하고있으며 그러한精 神으로 이會談에 臨하고 있는것이다 過去 八年동 안의 交涉에있어서 우리 의韓國 任務는 長久한 日本 殘忍한 제반문제를處理하 는데 合意할수 있었으며 韓國政府는 兩國間의 見